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용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가정의 달 5월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사랑을 주고,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다. 이번 5월은 이른바 '장미 대신'을 치르고 새로운 정부까지 출범해 그야말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만물이 푸르른 5월의 축제를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청년일 것이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탓에 학점 관리와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고 준비된 인재로 육성되어야 할 청년들이 취업 시장 문을 열어 줘야 할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골몰하는 현상은 사회적·국가적 손해이다. 이런 문제점에 공감하기에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각자 일자리 창출 공약을 고안해 내놓고 이를 서로 검증하는 데 열을 올린 바 있다.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광주교구 사무국장

부처님 앞에서 큰 절을 드리고 공양을 드리기 위해 온 한 손님이 방문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부처님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귀 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대중사님은 잠시 기다려보라 한다. 잠시 후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발에서 일을 마치고 온 제자들이 담뱃배이 되어 께와 호미를 하나씩 어깨에 들이매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자 대중사님은 그 선객을 보고 "우리 부처님들이 저기 들어오십니까?"라고 말씀하시니 그 선객은 그 말뜻을 이해하고는 큰 절을 올렸다 한다. 이는 부처님이 법당에 모셔진 불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죄주고 복주는 참된 부처님이요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에 서울 조계사에서 대선후보들이 모두 모여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며 합장했다. 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비정규직, 노인, 아동, 장애인, 여

기고



안용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5월은 특별한 날이 많은 달이다. 3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성년의 날,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21일 부부의 날 등 기념해야 할 날이 참 많고도 바쁜 달이기도 하다. 특히, 5월이 여느 달보다 포근하고 성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단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최소기구나. 국가, 사회, 개인의 행복은 가정에서 비롯되고, 그런 가정의 중심축이 바로 부부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연경(因緣經)에서 "오백 겁(劫)의 인연이 있어야 웃듯이

이공계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하자

이토록 취업문 뚫기에 온 나라가 울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공계 분야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현장을 보고 들을 때가 종종 있다. 10여 년간 지속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낳은 결과로 인재가 부족한 데다 매력적인 여건을 가진 직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이공계 분야에 기피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공계 전문직 양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임금 수준이 비이공계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공계 진학이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기회비용과 상대적 임금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이었다. 엔지니어나 연구직 등 이공계 전문가 한 명의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타 분야보다 훨씬 큰 데도 임금 수준이 그에 크게 못 미쳐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호 전공의 불균형이 낳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들이 인력시장에 80만 명가량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 졸업자 중에선 경영·경제 전공자들의 초과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까지

구인 및 구직 시장에서 경영 전공자의 인력 수요는 38만 명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공급은 50만 명으로 12만 명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력 공급이 많은 전공 중에 하나가 중등교육으로 향후 10년간 8만 명의 인력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반해 이공계 분야에는 인력 공급이 달리는 인력난이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및 금속 전공의 경우 2024년까지 필요한 전공자의 숫자는 18만명 규모인데 반해 이 기간 공급되는 졸업자의 숫자는 10만 명으로 약 8만 명이 부족하다. 이어 전기전자(7만 명), 건축(3만 명), 화학공학(3만 명) 등이 초과 수요가 많은 전공이었다.

알파고 열풍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분야를 막론하고 강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는 시기에 이공계 구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공계 전공과 일자리를 선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면 답은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와 구직난 속에서 일자리 선택의 기준은 '안정'일 것이다. 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에서 교사와 공무원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공계 역시 안정적이고 좋은 처우의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사례와 최근의 진로 조사 결과를 보면 희망이 보인다. 미국에서는 이공계 출신이 취업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전국대학교용인연합이 발표한 '2017 겨울 연봉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급 기준 전공별 예상 초봉 1위는 공학, 2위는 컴퓨터 과학, 3위가 수학과 기타 과학이 차지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진로 교육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이 선호하는 미래 희망 직업 10위권 안에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이공계 연구직 업종들이 여럿 등장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했던 2000년대 후반 조사 기록에는 중·고생 희망 직업 10위 안에 이공계 관련 직업은 한 개 뿐이었지만 이번 결과에서는 생명 및 자연 과학자나 정보 시스템 보안 전문가, 기계공학 기술자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너도나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준비는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공계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을 먹고 살기 위한 취업의 전진터에서 구해 내 전문성 강화와 자아실현이 가능한 삶의 현장으로 안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성, 군인 등 다양한 위치에서 땀흘리며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보들을 보며 실낱같은 희망을 잡고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을 잘 해결해주시길 바라며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거철만 되면..."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다시금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4월 한 달간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 철거를 위해 거의 살다시피 있었습니다. 롯데c.c골프장 입구 진발평화교당 천막에서 밤을 새면서 있다 보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이들이 많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처한 사람들이 10년 20년 남게 일인시위 및 천막농성을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경마을 주민들, 밀양송전탑 할머니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부당하고 피해자들 등등. 그들은 낮은 위치에서 실질적 사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온 이들이었으며, 앞에서 말한 부처님들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합장하며 소원성취를 빌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나 또한 몇 년 전 강경마을을 찾아가고, 밀양을 찾았지만 사드철회의 진발천막에 앉아 내가 그들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5·18민주광장에 5·18 진실규명과 옛 도청건물 복원을 위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247번째 그 외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우리가 부처님에게 합장공경의 마음으로 소중한 음식을 진설하듯이, 그들이 우리의 참 부처님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경청해야 하고, 그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해결돼야 할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지난 정권이 4년간 했던 소통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 동안의 소통이 더 많았다고들 합니다. 언론매체를 보고 있자면 '나라가 변했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변해야 할 것들이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운이 솟습니다. 어느 절에 머느리가 말을 듣지 않아 불화가 생겨 부처님에게 기도하고자 온 어느 노부부에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놓고 가면 잘 해결될테니 기도비나 많이 놓고 가시오"라는 기록론으로 말할텐가요? 아니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니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세요"라고 운명론으로 말할텐가요? 불공을 드릴 대상을 먼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기

도할 돈으로 머느리에게 만난 음식도 사주시고, 예쁜 옷도 선물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실지 불공할 대상에게 불공을 하면 그 머느리가 노부부에게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달라지고 서로의 관계는 점점 좋아질 것이고 관계도 원만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지불공'입니다. 선거철에 대통령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촛불에서 외쳤던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외침, 각종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서 호소했던 많은 사람들, 그 일들이 이념이나 사상 혹은 현재 법률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많은 이들이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불공일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국민이 정한 분배의 구조에서 어긋나 가진자들이 더욱더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는 부당사회를 처벌하고 균등한 분배구조의 사회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 그것들이 바로 국민에 대한 불공이고, 한표 한표로 일꾼을 뽑은 이유일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인을 불공하지 않는 사회로 다시 회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 언어불공이 아닌 실지로 파부로 제갈할 수 있도록 대상에게 불공하는 '실지불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5월 21일,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한번 스치고, 일천 겁의 인연은 같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삼천 겁이면 하룻밤을 함께 목격 되고, 오천 겁이면 한 동네에 살게 하며, 칠천 겁이면 한 집에 태어나 살게 하고, 팔천 겁이 되어야 부부의 연이 맺어진다"고 했다.

1겁(劫)은 세상이 한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후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몇 억만년의 시간인데 무려 팔천 겁의 인연이 있는 부부는 얼마나 깊고 깊은 인연일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부부의 날'은 첫 주창자인 권재도 목사가 어린이 날, "우리 엄마·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예요"라는 한 어린이의 TV인터뷰를 보며 충격을 받아 1995년 5월 21일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한 이후 2003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비록 우리나라가 3분의 1에 가까운 부부가 이혼을 하는 등(2015년 기준, 통계

청 발표)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혼율로 국가적 불명예를 얻고 있고 젊은 층의 이혼 분위기가 노년층에게까지 이어져 '황혼 이혼'이란 신조어를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평소 애정 표현이 서투르고 어색하다면 '부부의 날'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남편은 아내에게 정열의 표시로 붉은 장미를,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존중의 표시로 분홍 장미를 선물하며 부부간의 사랑 고백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연애시절의 애절한 마음을 되살려 보는 것은 어떨까?

또 한 가지 팁(Tip)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서로 편지를 써보자. 오해가 생기기 쉬운 즉흥적인 백 마디 말보다 자신의 감정을 담담하게 적은 편지 한 장이 부부사이에서 쌓인 장벽을 허물어 줄지 모를 일이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를 통해 만난 유명 연예인의 결혼발표에 사회가 떠들썩했다. 그들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화려함으로 포장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일가 친척들만 모시고 조촐한 식사로 대체하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社說

표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새 대통령에 바란다 2 협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집권 후 대당평과 협치, 국민 참여를 골자로 한 '통합정부' 구상을 내놓았다. 당선된 이후 행보도 순조롭다. 대통령이 취임식에 앞서 먼저 야당을 찾는 모습은 신선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경쟁했던 분들과 손잡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과반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민주당 의석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 법안 하나조차 처리하기 어렵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안이 발표되더라도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과거에도 정부 출범 후 여야간 갈등으로 정부 기능이 상당 기간 작동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지지와 도움을 이끌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협치의 리더십이 없는 국정이 바로 굴러갈 수 없다. 여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비서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청와대 비서진 등 연일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예제는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 검찰 출신의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홍보수석에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숙(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지금까지의 인사만 보면 대체로 신선하다는 평가지만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를 벗어나 야당 인사들까지 포용하는 파격은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은 정의당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대표를 '협치'의 상징으로서 노동부 장관에 기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의 입각 가능성을 두고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처럼 경쟁했던 후보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협치가 완성될 수 있리라 본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겠다"며 "정의를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사람은 당적 과 상관없이 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부디 이러한 약속이 지켜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 수습 만전 기해야

한국 어린이 10명이 숨진 중국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9시에 산둥성 웨이하이 시의 터널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에 불이 나 차량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 11명과 운전기사 1명이 숨졌는데, 숨진 유치원생 11명 중 10명은 4~7세의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버스는 터널 앞의 쓰레기 운반 차량과 충돌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가족들은 차량의 노후화 차량 관리 부실 때문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한 아이의 아버지 이정규 씨는 "아침에 아이가 '유치원 차가 너무 뜨거워'라고 하

면서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떼쓰는 걸 겨우 달래서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소화기나 유리창을 깬 말까지 비치되지 않는 등 부실한 안전 수칙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 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참사로 이어진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중한국대사관의 인력을 모두 가동해 조속한 진상 규명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국 정부 또한 법적 책임을 가리고 보상과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과학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평판(評判) 또는 권위(權威)는 실제론 허명(虛名)인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십, 수백 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전통이나 비결 가운데 상당수는 오히려 평가에 취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태극권의 대중사가 일개 격투기 강사에게 단 20초 만에 격파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7일 스포츠계 정두의 한 체육관에서 중 박합격투기 강사인 쉬 사오둥(39)과 '뇌공(腦公) 태극문파'의 창시자 웨이레이(41)

명품의 이면

이울린 소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오히려 새 바이올린의 소리가 더 청명하고 잘

울려 퍼지며, 조음과 음색 등을 감안하면 소리가 더 좋다고 답한 이도 있었다. 현악기는 만들어진 지 300~400년 후 진가를 발휘한다는 기존 업계의 평가를 180도 뒤집는 결과다.

명품이나 전통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온 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어 온 '브랜드'라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식이 외부의 평판과 권위에 맹종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지나쳐선 안 된다. /홍행기 사회부장 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